제3강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론

(1교시) J_jkJin02_040706_01.asf

◆ 감각-영혼의 기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기관을 영혼의 기관으로 규정한다.
"자연적 신체들은 영혼의 도구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을 영혼의 능력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영혼은 섭생능력, 욕구능력, 감각능력, 이동능력, 사고능력을 갖고 있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고차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 식물은 섭생능력만 갖고 있고, 동물은 거기에 욕구, 감각, 이동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인간만 유일하게 거기에 사고능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각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 오감의 확립과 위계질서

영혼의 종류(식물, 동물, 인간)에 따라 지각의 능력은 달라진다. 모든 동물은 적어도 촉각과 미각을 갖고 있으며, 후각, 시각, 청각 등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서 장소이동 동물들에게만 속한다고 한다. 인간의 경우 다섯 개의 감각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순서로 나열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진 권위와 함께 서구에서는 감각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세우는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 수용기관으로서의 감각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감각은 수용기관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감각은 움직여지고 영향 받는 데서 발생"하는 질적 변화다. 다시 말해 현실태가 아니라 잠재태로 있는 감각능력이 외적 대상들에 의해 촉발됨으로써 감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각작용은 개별자들에 관한 것인 반면, 지식은 보편자들에 대한 것이다. 때문에 원할 때 사유할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만,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반드시 외부대상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서 감각을 수동적인 작용으로 보는 전통이 성립한다.

◆ 감각 대상과 기관 사이의 관계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리스에는 감각을 대상과 기관 사이의 충돌로 보는 관점과, 대상과 기관의 동일화로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묘하게 종합한다. 기관이 대상에 "영향을 받는 과정 동안은 유사하지 않지만, 영향 받는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그것들은 서로 유사해지며 또한 같게" 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인 감각능력은 실제의 감각대상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 본질적 감각대상과 우연적 감각대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대상들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본질적' 감각대상, 다른 하나는 '우연적' 감각대상이다. 본질적 감각대상은 다시 (1) 색, 소리, 맛, 감촉 등 하나의 감각에 속하는 '고유감각'의 대상과, (2) 운동, 정지, 수, 형체, 크기 등과 같은 '공통감각'의 대상으로 나뉜다. 한편, 우연적인 감각이란, "저 흰 것은 디아로스의 아들이다"라

고 말할 때처럼 어떤 대상에 우연히 속하는 속성을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매질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론이 기존의 것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감각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의 직접적 접촉을 부인한다는 점에 있다. 그에 따르면 감각은 대상과 기관 사이의 '매질'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감각기관은 대상을 질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감각의 대상을 떼어놓아도 지각과 표상이 감각기관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감각의 대상과 감각의 기관 사이에는 인식론적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각의 기관은 눈이고, 시각의 대상은 색깔이며, 그 매질은 공기나 물과 같은 투명한 것이다. "색깔은 투명한 것을 움직이며, 이것이 그것의 본성이다." 색깔은 공기와 같이 투명한 것을 움직이며, 이것이 다시 감각기관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감각기관은 색깔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투명한 매질을 통해 색깔을 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청각의 기관은 귀이고, 청각의 대상은 소리이며, 그 중간 매질은 공기이다. 후각의 기관은 코이고, 후각의 대상은 냄새이며, 그 중간매체는 공기와 물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각과 촉각에 대한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미각의 기관은 혀이고, 미각의 대상은 맛이며, 그 중간 매질은 없다. 미각은 촉각의 일종으로, 미각대상은 다른 물질적인 매개 없이 직접 감각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모든 감각이 매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일반론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 논리적 난점은 촉각을 논하는 부분에서 기묘한 방식으로 해결된다. 촉각의 기관은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심장)이고, 대상은 접촉되는 모든 것이며. 그 중간매체는 살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신체라는 것이다. 즉 촉각은 "매체와 동시에 감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은 감각기관이 아니라 실은 감각의 매체이며, 촉각을 느끼는 감각능력은 몸 안에 들어 있다고 한다.